

# 60년대 불란서 히피복식에 관한 연구

## Study of Hippy style in 1960s France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의류직물학과  
교수 이인성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 College of Home Economics, Ewha Womans university

Prof.: Lee in seong

### 〈목 차〉

- |                    |                    |
|--------------------|--------------------|
| I. 서론              | III. 불란서 히피 복식의 특성 |
| II. 히피의 출현과 일반적 특징 | IV. 결론<br>참고문헌     |

### 〈Abstract〉

Hippie style was introduced in 1960s when young generation's movement against industrial society and mass culture was spread. Its value was to go back to "Real and Pure Nature". Hippie originated from "Human Be-in" which was non-violent revolution held in sanfrancisco.

Americian Hippie style was represented through freedom and love based on drug and psychedelic culture which were created by the young generation who were against traditional esthetic value as well as the moral and material value.

However, Hippie style was represented differently in France. The privileged classes such as artists who were interested in surrealism, art negro and primitive culture, the intelligentsia like Montparnass in Paris, accepted Hippie style faster than ordinary people did. Therefore, Hippie style in France was represented as an esthetic mode not a symbol of anti-culture and anti-policy.

The general public imitated the style of the privileged classes and coordinated their style according to their personality without any standard such as blue jeans, ethnic, psychedelic, mini, mods, beatnik, etc.

Yves Saint Laurent who was influenced by hippies led the mode of Paris to introduce "Africa", "Saharienne", "Pathwork".

Therefore, in 1960's fashion in Paris, everything was possible because of too many changes in fashion and refusal of accepting vogue.

## I. 서론

본 연구는 1960년대 불란서 히피복식에 관한 연구로서, 미국에서 출현했던 히피패션이 어떤 유형으로 패션의 본 고장이라고 불리는 불란서에서 받아들여지고, 표현되었나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패션은 항상 사회적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세대들이 상징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서 영감을 얻는다. 60년대 당시 불란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들이 주축을 이루어 새로운 의식과 젊음을 표명해 나갔으며, André Courrèges의 미니룩, Pierre Cardin의 Cosmonaute 스타일, Paco Rabanne의 메탈소재 디자인, Yves Saint Laurent의 몬드리안 드레스와 스모킹 룩 등이 발표되면서 세계의 패션계를 이끌어 가고 있었다.(Y. Deslandres 외, 1986) 한편, 젊은 세대들은 당시 Haute Couture 디자이너들이 발표하는 의상들이 그들의 사상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온건하다고 생각하여, 점차적으로 더욱 새로운 형태의 의상, 즉 기존의 사상, 전통과 전혀 다르고, 자유로움을 표출할 수 있는 의상을 원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미국에서 건너온 여행자나 예술가들에 의해 히피문화가 소개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불란서에서 수용된 히피복식은 그 사상이나 생활방식에 있어 사회운동이나 반전에 참여했던 순수한 미국식 히피와는 달리 외형상 일시적으로 추종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A. Bony, 1989)

지금까지의 히피복식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서유리·조규화의 『American Hippie와 그 복식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여기서는 히피의 근원지인 미국 본토의 히피패션의 출현 배경과 그 특성에 초점을 두었다. 최근 우리나라 패션현상을 볼 때, 60년대 상황처럼 젊은층 위주로 되어있고, 서양의 유행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현상을 쉽게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0년대 말 불란서에서 나타났던 현상, 즉 패션 리드자의 입장이 아닌, 미국의 히피패션을 받아들여, 자기나라의 특성에 맞추어 재창조 작업을 거친 후, 오히려 세계패션의 유행을 리드해간 실례와 히피 패션의 특성인 다양성을 살펴보면, 우리도 서구의 패션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닌, 독특

하고 다양하게 개성화시키는데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불란서 히피가 출현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과 미국과는 다른 불란서적 특징을 가진 히피복식의 일례를 살펴 보았는데,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는 미국 히피 복식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예술인과 지식인, 유명인 등의 특권층 복식, 이를 받아들인 일반대중 히피복식, 히피복식의 에스닉취향을 받아들여 디자인에 응용한 Haute Couture 복식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자료로는 일반 대중복식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불란서 여성들이 가장 많이 애독하는 'Elle'나 'Marie Claire'에 나타난 사진과 기사를 중심으로, 불란서 히피복식을 소개하였던 특권층과 Haute Couture에 대해서는 'Vogue'나 'Officiel'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Haute Couture의 고찰 대상으로는 히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디자이너 Yves Saint Laurent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II. 히피의 출현과 일반적 특징

60년대말은, 산업사회와 대중 소비자 문화에 반대하는 젊은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였던 시대였다. 중점적 가치로 진실되고 산업사회에 반발하여『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출현 하였다. 젊은이들은 들만에 모여 집단 생활을 하였으며 이러한 운동은 소수집단의 생활방식의 변화 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음악과 의상의 출현을 가져 왔다. Laura Ashley의 잔잔한 꽃무늬 프린트 직물을 사방에서 볼 수 있었고, 레이스 속치마, 밀짚모자 스타일이외 외모를 돋보이게 했다. '자연으로의 탈출'이라는 주제는 하나의 슬로건이 되었다.(Y. Deslandres 외, 1986)

### 1. 히피의 출현

히피의 기원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7년 샌프란시스코의 Golden Gate Park에서 열린 약 1만명이 모인 "Human Be-In" 행사에서 히피들은 록 음악을 듣고 약물을 복용하면서

힌두교의 기도문을 들었다. 이 행사는 비폭력적 혁명의 생명력이 되었으며 반문화 공동체의 출현을 예고 하였다.

당시의 미국은 경제적 성장이 동반한 부의 편재에서 오는 소외집단들의 불만과 케네디 대통령, 마틴 루터킹의 피살에 따른 흑인 민족주의 운동과 월남전의 개입으로 인한 젊은 층들의 사회에 대한 비난이 높아져 갔다. 여기서 히피들이 추구한 대안은 기존 사회를 변혁시키기보다는 이탈해 버리는 평화적 해결 방안이었다. 동시에 그들의 윤리관은 평화와 검소를 강조한 유대 예언자인 Holle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친 그리스도, 부다 그리고 비폭력과 즐거움의 상징인 간디의 사상을 보여준다. 또한 자연에 대한 사랑과 금전에 대한 거절의 상징인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로부터 오는 것이기도 하다.

히피들은 우주적 정신에 접근하는 것과 같은 신비한 세계의 영상을 가능케 하는 환각제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아름다움의 기쁨을 보여 주기를 원했다. 록 가수들은 저항의 노래를 불렀고 “Make love, not war”와 같은 반전 구호의 외침이 사회 각층에서 높아져 갔다. 그들은 평화와 사랑이라는 슬로건과 사랑의 심볼인 꽃을 가지고 유럽의 젊은이들을 매혹시켰다. 평화의 상징인 꽃들은 진이나 나팔바지 위에 장식문양으로 자수되었고, 셔츠나 긴 인디언 스커트에 프린트 문양으로 애용되었으며, 긴 머리 위에 꽃기도 하였다. 이러한 복장은 히피 운동의 일면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산업사회 이전의 문명에 대한 관심 또한 수반하면서 동양 문명에도 관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당시 불란서내에서는 많은 젊은층들이《Salut, les copains(안녕 친구들)》이라는 열기 아래 팝 가수등 대중 스타의 스타일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었다. 즉, 가수 Johnny Halliday의 《진》패션, 유로비전에서 대상을 받은 France Galle의 《Mao》스타일, Françoise Hardy의 유니섹스 스타일등의 예술가 계층의 옷을 모방하며, 기존세대와는 다른 그들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갔다.(M. Delbourg Delphis, 1983) 하지만, 이러한 특권층의 스타일을 추종하면서도, 그들의 세련미나 우아함은 추종하지 않았으며, 젊은이들은 화장

을 하지 않은 자연적인 모드를 선호하였다. 또한, 때마침 일어난 기성세대의 사회를 부정, 거부하는 68년 5월혁명을 모든 사회계층의 젊은이들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들은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구호아래, 옷을 통해 단결을 나타내었는데, 대부분의 소년들은 긴머리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소녀들 역시 마찬가지로였다. 이를 본 Balenciaga는 자신의 젊은 여성 고객들이 진을 입은 채 바리케이트 뒤에 있는 것을 보고 부티크의 문을 닫기로 결정하기도 하였다.(Y. Deslandres외, 1986)

기성세대들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산업기술의 발전에서 찾는데 반해, 2차 대전후 경제적 성장기 속에서 낙관론이 가능했던 시대에 자란 많은 젊은세대들은 산업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꿈꾸고, 아니면 최소한 필요한 것을 남기고, 수공업으로 돌아가는 것을 희망하였다. 그들은 기계가 아직 사람을 지배하지 않았던 과거의 옷을 끄집어내어 입기 시작했으며, 특히 19세기 초반의 로맨틱 패션을 받아들였는데, 그 이유는 19세기가 산업 사회가 막 시작되기 이전, 인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던 《바보 같은 19세기》였다고 생각하였고, 이 시대가 인간의 영혼이 가장 의상에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이 젊은 세대들이 미국 히피 문화를 가장 사상적으로 공감했던 세대들이며, 그들의 과거 문화로의 향수와 기존 사회에 대한 반발을 특권계층이 갖고 들어온 히피 복식을 모방하면서 기성세대와는 다른 그들만의 계층을 외양상 복식으로 표현하였다.(B. du Roselle, 1980)

## 2. 유럽 히피문화의 형성

유럽의 히피문화는 초현실주의 시대에서부터 그 싹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의 1·2차 세계대전 사이에서 나타난 도피, 불합리, 경탄과 에로티즘의 초현실적 거대한 갈망은 지리적으로 먼 나라(아시아) 또는, 역사적으로 먼 문명(일명 원시 문명)에 대한 심취와 일치한다.(J. Lobenthal, 1990) 산업사회 이전의 문명은 초현실주의 작가 André Breton과 Max Ernst를 상당히 매료시켰고, 서양에 의해 식

민지화 되었던 문명들은 그 반대로 서양 문명에 일종의 반격을 가한다고 볼 수 있겠다. 초현실주의는 일반적으로 야만적 혹은 이교도라고 일컫는 문명들의 노래와, 반짝이고, 나무끼는 치장들을 이용함으로써 우울하고, 가라앉은 서양세계를 매료시키며, 딱딱한 기독교적 윤리에 일격을 가했다. <Fig. 1> 이러한 경향은 20세기초 일부 소수층, 몇몇의 예술가, 특히 최초의 큐비즘의 출현을 주관한 사람들, 흑인 예술에 가치를 둔 사람들, 오세아니아나 인디언 예술들을 서양의 걸작품들과 같은 가치를 둔 사람들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Brake의 이론에서처럼 히피의 가장 직접적인 근원을 보헤미니아즘의 전통인 비트 세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40년대 파리의 몽파르나스를 중심으로 한 젊은 지식계급, 즉 샤르트르나 보바르와 같은 지식층과 예술가들이 이 세력의 중심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점들이 불란서내의 히피문화가



<Fig. 1> Salvador Dail의 "우울한 장난", 1929 :  
「Histoire de l'art moderne」

미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있어서, 정신적인 근원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J. L. Ferrier, 1990) (M. Brake, 1985) 이러한 초현실주의의 특징인 도피의 욕망은 서방세계의 기독교적 전통의 규범으로부터 탈피하고, 경화되지 않으려는 젊은이다운 사고를 가짐으로써만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M. Thomas, 1986)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수공예품들이 유럽의 수도에 산재되어 나타나고, 원시예술과 민속품만을 집중적으로 전시하는 화랑들도 생겨났다. 또한 옛것에 대한 취향은 일요일마다 벼룩시장을 가게 하였으며, 수많은 골동품 가게와 고물상을 낳게 하였다.

### 3. 사이키델릭

초현실주의를 히피문화의 시초로 본다면, 60년대 히피문화의 출현은 사이키델리즘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이키델리즘은 다양한 약물, 특히 L. S.D.(Lyserg Saure Diethylamid)의 사용에 기반을 둔 반 문화의 일종이다. 60년대에 환각을 일으키는 약물의 출현은, 젊은 층에서 암페타민, 카나비스, L. S.D., 헤로인 사용의 증가 현상으로 여론에 큰 논쟁을 야기시켰다. 사이키델리즘은 과학적 신비주의의 일종으로 L.S.D. 만이 개인의 강한 창조력을 드러나게 하고, 의식의 확장이 이루는 날아갈 듯한 행복감의 정신착란에 의해 보통의식으로는 제한을 받을 행복과 진리에 도달하게 하여 준다는 주장이다. 의식의 확대에 의해서 망상의 지각적인 상태를 보여 주거나, 형상화시키는 모든 예술이나 그 외의 창조를 사이키델릭 결과로 규정짓는다. 사이키델릭 미학적 측면은 근본적으로 영상화된 이미지의 이상하고 무질서한 축적에 원칙을 두고 있다. 표면상의 조화를 무시한 음과 색의 무질서, 혹은 형식적인 계획의 명료함이나 이해성의 고의적인 부재 위에 정립된다. 즉, 가장 대중적으로 복잡하고 화려한, 약간은 별난 모든 창조를 사이키델릭 창조라고 규정한다.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경험 이상까지 경험하는 시인들은 사이키델릭 약물에 의해 야기된 정신적 여행에 대해 이야기한다. <Fig. 2> (J. P. Bouyxou와, 1992) (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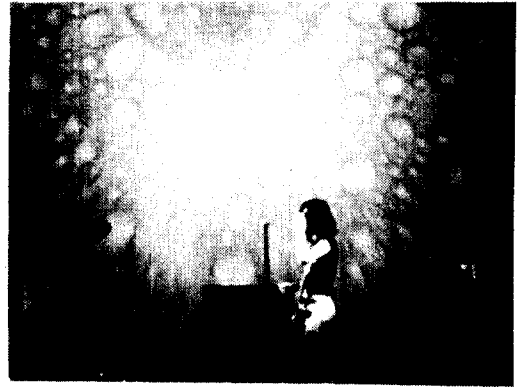
Yablonsky, 1969)



〈Fig. 2〉 Matta의 “내면세계로의 여행” (정신세계의 형태) 1939 : 「Histoire de l'art moderne」

1967년에 발표된 비틀즈의 노래〈Lucy in the sky with diamonds〉의<sup>1)</sup> 가사에서도 사이키델릭한 색감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사이키델릭 구성, 즉, 사이키델릭 음악을 듣는 것, 음악의 충동적인 힘에 빠져드는 것, 본능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들 역시 환각의 세계와 맞닿는 것이다.(P. Garner, 1982) 만약 L.S.D. 가 환각적 종교의 제물의 일종으로 여겨진다면, 음악 콘서트나 축제는 그 종교의 미사가 된다. Light-show의 영향력 아래서 전통적인 음악 콘서트에서처럼 앉아서가 아닌 선 자세로 있는 관객들에 의해 소리치고 춤을 추는 활발한 참여는 전통적인 축제와 콘서트 즉, 연극이나 고전 음악과는 구분되어진다. 〈Fig.3〉

마약과 비슷한 효과의 stroboscopique 빛이라고 불리는 간헐적이고 강렬한 빛의 사용은 마치 비로 젖은 길 위에 기름 얼룩처럼 투영되어 변화되어가는 것처럼 춤추는 무리와 벽위를 지나가는 색과 그림을 light show에서 보여준다. 이러한 콘서트와 팝축제는 1969년 50만명의 관객이 모였던 Woodstock의 축제



〈Fig. 3〉 팝공연에서 보여지는 light-show : 「Radical rays : Fashion of the sixties」

에서처럼 대규모 모임을 제공한다.(A. Bony, 1989)

물론 참가 인원의 반이상이 히피라기보다는 중산층의 청소년이었지만 거기서 쉽게 사이키델릭한 의상, 거리낌없는 노출, 개방적인 성관계등 히피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볼 수 있었다. 〈Fig. 4, 5〉

그러한 축제는 히피 경향을 띠는 팝의 스펙타클적인 창조를 만들며, 여기 저기에서 환각 현상을 볼 수 있다. 수 많은 예술가들이 사이키델리즘을 극찬하기 시작하고 일반적으로 그들은 화려한 약물적 색이나 만화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소심한 미니멀리즘이나 옵아트와 환상적인 측면의 방향을 바꾼다. 이러한 경향은 포스터나 특히 팝 디스크 앨범의 표지에서 볼 수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의 주도적인 예술 형식의 하나였던 포스터는 사이키델릭 아트가 가장 활발했던 장르로서 록 콘서트나 이벤트등을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제작되었다. 또한 히피들은 화려하고 제 멋대로인 사이키델릭 디자인을 자동차에 페인팅하기도 하였다.(B. Hiller, 1983)

마약을 복용하는 것과 함께 현실을 부정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소속 사회에서 이탈하여 공동체 생활에 의탁하는 것이다. 도시에서 떠나 고향에 대

1) 굴색나무와 오렌지색 하늘이 있는 강에서 보우트를 타고 있는 당신을 그려 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부르고 당신은 아주 느리게 대답합니다. 만화경 같은 눈을 가진 소녀여, 노랑과 초록의 셀로판 꽃들의...



〈Fig. 4〉 Woodstock 페스티벌에 참가한 재니스 조플린 :  
「Fashion of a decade : the 1960s」



〈Fig. 5〉 1969년 런던 Hyde park의 롤링스톤즈 공연에  
참가한 히피들 : 「Street style」

한 향수와 자연 회귀의 본능에 따라 새로운 생활양식이 요구하는 순수한 전원 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이 4만명에 달하였다.

이에 반하여 불란서에서는 히피가 다른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란서의 히피는 수 많은 집단들의 모임이 아니다. 극소수의 미국에서와 같은 순수한 히피들이 존재하고, 외형적으로만 히피의 모양을 한 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불란서에서 히피가 된다는 것은 사회에 대한 온건한 반항이 아니라 어떤 패션 즉, 예술이나 스펙타클 안의 사람들을 통해 런던이나 미국에서 오는 패션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F. Boucher, 1988) 68년 5월 혁명과 더불어 금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버린 자유와 해방속에서 젊은층들은 미국 히피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꿈꾸어 오던 것이나 존재하지 않은 다른 세계를 반영한 사상이나 패션을 원하였다. 그들은 A. Courrèges, P. Rabanne, P. Cardin의 실험적이고 우주적이고 기계적인 스타일이 아닌, 전혀 새로운 자연적인 스타일의 패션을 원하였고, 그들의 우상이었던 《Salut, les copains》의 대중 스타들이 입은 자유 분방한 민속 의상이나 사이키델릭 의상등의 히피 복식 이미지를 자신들의 의상과 혼합하여 재현하였다.

### III. 불란서 히피 복식의 특성

히피 패션은 대량생산으로 개성 표현이 불가능해지고, 욕구불만의 감정과 싸우던 젊은이들이 꿈과 시를 열망하면서 찾게되는 표현의 욕구와 일치한다. 구 유럽과 비교하여 엄청나게 거대한 비율을 차지하면서 1965~1966년에 히피의 현상이 나타난 곳은 미국이다.

60년대 후반 미국의 대표적인 젊은층 패션은 히피에게서 찾아 볼 수 있으며 히피 패션의 가장 큰 특징은 스타일의 다양성이다. 청바지에서부터 에스닉, 사이키델릭, 미니와 모즈(Mods)족, 비트닉(Beatnik)족 스타일에서 영향을 받은것에 이르기 까지 모든 요소들이 일정한 기준없이 착용자의 개성에 따라 코디네이트시켜 나타났다. 〈Fig. 6, 7〉 (서유리 외, 1995)

불란서에서는 순수 히피 복식에서 얻은 이미지를 예술가나 유명인들이 자신들의 개성에 맞게 확대시켜 착용했고, 이것을 다시 추종자들이 그들에게 어울리게 받아들여 유행시키는 형태로 나타났다.



〈Fig. 6〉 런던의 Carnaby 거리에서 보여진 가지각색의 스타일 : 「Street style」



〈Fig. 7〉 Piccadilly circus 거리의 히피 복식 : 「Street style」

### 1. 특권층에 나타난 히피 복식

처음으로 히피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히피 패션에 심취되어 외부와 차단되어 살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그들의 일과는 일반인들과 다른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히피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영유할 수 있는 특권, 이를테면 옷의 선택에 있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이것은 또한 무대 위에서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이 패션의 실험실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어진다.

파리에 처음으로 나타났던 히피들은 haschisch 순례에 속해 있던 미국의 젊은 여행자들로서 초기에는 파리에 장·단기간 거주하던 미국의 조각가, 화가,

음악가, 코미디언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안에서 그들의 히피 문화를 느끼고 따르기 시작한 첫 무리들이 불란서 히피 패션의 경향을 보급시키고 유행을 내놓은 사람들이며, 이는 그들의 직업이나 수입이 옷 선택에 약간의 자유를 주었기 때문이다.

불란서에서의 히피 복식은 파리의 유명한 레스토랑 castel에서 보이는 예술가, 젊은 유명인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남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나 혹은 즐기기 위해서 이상하게 또는 아름답게 19세기 풍이나 인디언 처럼 치장하는등 순수한 히피복식 이미지를 당시의 패션흐름과 혼합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듯, 불란서에서는 의복이 히피를 말해주며 본연의 상징적인 의미가 사라진 스타일로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데, 평범한 것이나 이미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말할 수 있다.

히피들은 또한 새로운 자유를 향한 광적인 열정을 악물을 통해 심적 황홀감과 충만감을 느끼려 하였다. 이러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예술이 사이키델릭 아트이며, 그 페인팅은 요란하게 혼합된 유기적 곡선을 야광에 가까운 밝고 선명한 색조로 표현한다. 〈Fig. 8〉 디자이너들도 즉시 형광적 색채를 사용하여 이 사이키델릭 유행을 모방하여, 디자인을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Fig. 9〉

남자들의 옷차림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여성적



〈Fig. 8〉 Martin sharp가 그린 cream의 67년 앨범표지 : 「Arts Décoratifs de 1940 à 1980」



〈Fig. 9〉 Emilio Pucci의 사이키델릭 앙상블 :  
「Fashions of a decade : the 1960s」

되어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들은 형광색의 펠릭거리리는 셔츠, 화려한 색으로 프린트 된 스카프, 진주로 장식된 허리띠를 착용하기 시작했다. 1967년 비틀즈가 〈sergeant pepper's〉앨범 표지에서 입었던 의상 〈Fig. 10〉은 젊은 남성들에 의해 착용되는 의상의 형태, 즉 색깔있는 스카프와 가슴장식이 달린 셔츠, 화려하고 여성적으로 변화한 옛 유니폼의 형태로 대표되어진다.(B. Burman, 1981)

〈The Mirror〉지의 패션기자가 “금박이나 붉은 선장식에 의해 그들이 아름다운 외관을 갖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남자들은 시내에서 흰색 진과 줄진 벨벳 바지위에 옛 유니폼 차림을 하고 다녔으며, 머리를 길게 기르고, 결국은 와이셔츠와 재킷의 착용을 포기하였다. 소녀들도 소년들처럼 고물상에서 오래된 벨벳, 깃털, 진주나 금화 장식의 상의를 구해 입었고, 가능한 한 많은 진주와 팔찌 장식을 하였다. 물론 이러한 유행에 호응하지 않는 소녀들은 maxi style의 접근에 의해 그 미래가 불안정



〈Fig. 10〉 Peter Blake가 만든 비틀즈의 「Sergeant Pepper's」 앨범표지. 1967 : 「Les années 60」

한 mini 스커트를 계속 입었으나, 한편에서는 mini-maxi를 조심스럽게 수용하였다.

젊은 여성들이 선호한 스커트는 꼭끼거나 혹은 몸에 좀 더 밀착하는 독특한 색으로 프린트된 원피스형이다. 여기서 보이는 꽃무늬 프린트는 자극적인 색, 즉, 도발적인 녹색 톤, 날카로운 분홍색, 형광 오렌지색, 레몬색, 보라색의 사이키델릭 색상과 프린트로 환각을 일으키는 약물의 효과에서 볼 수 있는 강렬한 이미지를 나타낸다.(J. Laver, 1990)

## 2. 대중 패션에 나타난 히피 복식

당시 히피들의 모습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청바지이다. 그들은 청바지로 기성세대의 획일적인 패션과 경직된 감각에 맞섰고, 헤지거나 찢어진 청바지로부터 벨보탐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패션으로 나타났다. 청바지 위에 개성있는 장식을 더하거나 그림을 그려넣기도 하였다. 〈Fig. 11〉 (J. Lobenthal, 1990) 히피 복식에 있어서 얼굴에 축제 분위기를 띄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 머리 스타일은 형클 어지고 컬이 있으며, 리본이나 금속관으로 장식하였



다. 때로 머리에 핀을 꽂기도 하였고, 무거운 펜던트를 목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2> 남자들은 토그나 모피로 된 모자를 쓰며, 더 이상 넥타이를 매지 않았다. 대신에 목걸이, 조개장식, 채색된 씨앗이나 유리구슬, 펜던트, 은부적, 준보석 돌이나 구리들을 많이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때때로 어깨 위에 솔이나 케이프를 들렀으며 두건 달린 겐웃이나 카톨릭 상제 의식 스타일의 옷을 입었다.



<Fig. 11> 청바지에 그림을 그려 넣어주고 있는 Vere Smith : 「Radical rays : fashions of the sixties」

힙에는 아주 굵은 벨트를 매었으며 남자나 여자 모두 평퍼짐한 바지를 입었다. 여자 바지의 경우, 아주 통이 넓거나 꼭 달라붙고 그 길이가 부츠 높이에서 끝나는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였으며, 스커트 길이 역시 아주 초미니이거나 종아리 중간 부분, 혹은 발목까지 오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히피들은 이국적인 팔찌나 반지를 애용하여 착용하며 시간과 장소에 따라 맨발이거나 혹은 아주 장식적인 신발을 신는다. 꽃을 테마로 삼는 것 역시 히



<Fig. 12> 인도풍의 영향을 받은 에스닉한 히피 복식 : 「Mode」

피 복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의 평화주의 운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꽃으로 말하라》는 메시지이며, 남들에게 꽃을 나누어 주었다. 상징적 측면에서 볼 때, 꽃은 재생 즉, 봄, 기쁨, 환희나 우아함의 상태를 의미하므로, 히피들은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가로 막을 수 있는 콘크리트나 강철로 쌓인 모든 문명에 반대하였다.

색들은 어둡고 깊이 있는 것들과 상반되는, 팝아트 스타일 안에서 볼 수 있는 반짝거리는 색들로써, 보석이나, 스팅클, 유리, 금·은 자수, 반짝이는 금속 조각들의 빛과 광택을 나타내 주기에 적절하였다.(P Garner, 1982)

의상의 장식은 자연적 소재 즉, 대부분 농업, 전원 생활의 장식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러나 히피 의상에 사용된 재료들은 물론 모두 다 자연 상태 그대로 취해진 것은 아니며 수작업된 가죽이나 수공업으로 제공된 준 보석류의 금속 등을 사용하였다.

덜 장식적이고,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기성복 제품들은 히피들에 의해 독창화 되었는데, 예를 들어 블루진의 가장자리 울을 풀거나 색을 바래게 했으며, 스웨터나 재킷은 《전쟁을 하지 말고 사랑을 해

라》,《국경을 없애자》등의 구호를 담고 있는 배지로 장식을 하였다.(E. Ewing, 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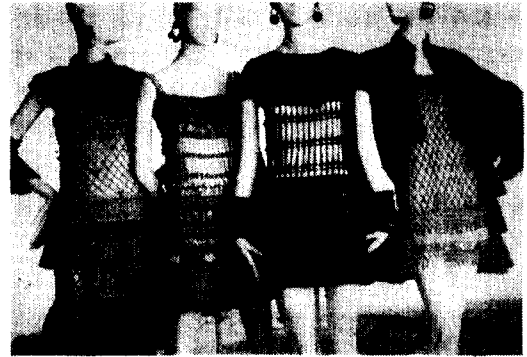
히피 스타일은 일반적으로 부드럽고 유동적이며 느긋한 스타일이다. 이 새로운 경향의 특징은 산업 사회에서 볼 수 없는 소재들의 이국적 취향에 있다. 장식들은 일반적으로 목가적 영감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여유 있고, 단순하며 편안감을 주는 재단은 활동을 자유롭게 하였다.

히피패션은 장식을 지나치게 많이 한 특징이 또한 있으며, 히피패션의 파급과 더불어 신체는 조금씩 뺏겨 천의 속박과, 과시적이고 복잡한 재단에서 온 섬세하고 세련된 형태에서 해방되며, 동시에 정신은 풍부하고 정열적인 색채와 가지각색의 다양한 소재의 사용으로 인한 화려함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히피들은 소외당한 소수 민족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미국히피들이 아메리카 인디언을 두둔할 때, 프랑스 히피들은 브라질이나 오크족 문화에 열중하게 된다. 민속복이나 부적, 수공예품 같은 전형적인 특성을 채용하는 것은 히피들이 확대당하는 소수민족에 동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로 보인다.(M. Thomas, 1986)

### 3. Haute Couture에 나타난 히피 복식

Haute Couture Collection에서 히피들의 민속복에 대한 취향을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디자이너는 Yves Saint Laurent으로서, 그는 자신의 디자인에 그 흐름의 특징을 도입하였다. 1967년, 그는 일명 《아프리카》라 불리는 의상을 발표하였다.<Fig. 13> 여기서 그는 이브닝 드레스를 일반적인 고급 소재(머슬린, 새틴)가 아닌 린넨이나 라피아 야자수, 유리나 나무 구슬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Haute Couture계에서 큰 충격을 불러 일으켰으며, Harper's Bazaar등의 프레스 측으로 부터는 《원시적 천재의 상상력》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이러한 그의 아프리카풍 스타일에 이어서 1968년에는 최초의《Saharienne》<Fig. 14>과《Jumpsuit》를 발표하였는데,(M. de Brunhoff, 1982) 이 의상에서 그는 자신이 “벼룩시장 옷”이라 부른 히피풍의 디테일을 다



<Fig. 13> “아프리카” 드레스, 1967 :  
「Yves Saint Laurent」



<Fig. 14> 사하리안, 1968 : 「Yves Saint Laurent par Yves Saint Laurent」

양하게 조화시켜, 일반적인 블레이저, 바지, 수트의 기본 라인을 지키면서 디자인에 응용하였다. 또한 Yves Saint Laurent은 1968년 말 뉴욕의 Central Park 방문 후, 히피의 민속복에 대한 취향을 Haute Couture에 맞게 응용한 꽃무늬 블라우스와 패치워크 스커트

로 된 작품을 1969년 컬렉션에서 발표하였다.(서유리 외, 1995)

Haute Couture에서 히피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에스닉 취향, 히피 복식은 불란서에서 나타난 히피 복식 현상을 아주 극단적으로 대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히피 복식이 본래의 메시지인 반문화적인 이미지는 사라지고, 특권층 사이에서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잘 차려입은 보헤미안 역으로 단지, 디자이너의 창조적인 작업을 위한 영감으로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Givenchy 나 Dior, Nina Ricci, Cardin 등의 디자이너들도 인도나 중동, 인디안 스타일풍의 비즈장식이나 프린트 패턴, 프린지등을 디자인에 이용하면서 히피풍의 에스닉한 모드에 동참하면서 파리를 이끌어나갔다. <Fig. 15, 16> (Y. Deslandres 외, 1986)



<Fig. 15> 모직과 벨벳으로 된 패치워크 스커트.  
Dorothée bis : 「Elle」. 1969



<Fig. 16> 히피 모드의 영향을 받은 에스닉한 의상을 입고 있는 Twiggy : 「Fashion of a decade : the 1960s」

#### IV. 결론

히피문화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도덕적 물질적 가치에서 뿐 아니라 미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 기준에 대해 반기를 드는 기존 체제에 대한 저항과 공동체 집단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나타났다.

한편, 불란서에서의 히피의 출현과 복식은 그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 시초는 초현실주의이며, 서양의 기독교적 윤리에 반대되는 이교도적인 경향을 선호하고, 큐비즘의 출현을 주관하거나 미개하다고 말하는 원시 문명과 흑인예술에 관심을 둔 사람들, 40년대에 파리의 몽파르나스를 중심으로 한 지식층, 예술가들 사이에서 히피 문화와 비슷한 류의 반문화적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60년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일반인들과는 다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계층, 즉 예술가, 지식층, 유명인들이 미국의 히피문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였다. 그들은 직업적으로 미국 히피들 안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사상, 복식을 받아들

여 무대 위나, 일반 대중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남의 시선을 끌기 위해, 혹은 즐기기 위해서 복고풍이나 민속풍등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옷을 입고 나타났다. 이미 그들의 옷에서 히피문화의 메시지, 상징성은 사라지고 하나의 외형적 미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히피문화의 외형적 모방이 특권층에서 일반인들에게 전해지게 된다. 68년 5월 혁명과 더불어 소외받는 노동자 계층들에 더욱 가까이 가고자 했던 젊은 층들은 자신들의 우상인 스타들이나 예술가들이 입고 나오는 히피 복식에서 그들이 원하였던 자유로움을 발견하게 된다. 자유와 성 해방을 상징하는 청바지를 남·녀 모두 착용하며, 산업혁명 이전의 19세기의 로맨틱한 복식과 이국적인 복식을 선호하였고, 약물문화와 함께 나타난 화려한 사이키델릭 프린트나 형광색 역시 기존의 기독교적 윤리 체제의 거부를 표현하기에 적합하였다. 지금까지의 패션을 리드해왔던 Haute Couture 디자이너들이 오히려 히피 복식의 영향을 받아, 가장 늦게 히피의 에스닉취향을 디자인에 응용하면서 민속풍조의 디자인을 발표하게 된다. Haute Couture 디자이너들의 히피 복식은 일반 대중들의 에스닉 취향이 디자이너의 창조적인 작업을 위한 영감으로 작용하면서, 세련된 집시, 보헤미안 스타일로 재 창조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리드해왔다.

물론, 일반적으로 히피 패션은 단순한 유행 패션이 아닌, 자유에 대한 열망, 개성의 표현, 개인의 창조에 대한 기본 원리들을 담고 있는 경향의 표현이며, 옷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표명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패션 경향을 비교해 볼 때, 매 시즌 발표되는 스타일 속에서 무작정 추종이 아닌, 우리의 특성에 맞는 재창조 작업이 필요함을 느낀다. 젊은층들은 히피 패션에서 보여진 다양성, 그들의 사상과 꿈에 맞는 기본 원리를 나타낼 수 있는 복식을 과거와 다른 문화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이 일률성 원리를 지배하여, 더 나은 창조와 개성화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상기하여 제시되는 모든 유행을 무작정 따라서는 안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김민자, "2차 대전후 영국 청소년 하위 문화 스타일 - Teddy Boys, Mods, Hippies, Skin heads와 Punks 스타일의 상징성에 대하여", 한국의류학회지, 제11권, 2호, 1987, pp. 69~89.
- 2) 김소영, 양숙희, "진패션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 반 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제20권, 4호, 1996, pp. 573~585.
- 3) 나채희, "New Wave Fashion",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4) 서유리, 조규화, "American Hippie와 그 복식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19권, 2호, 1995, pp. 278~286.
- 5) 이주영, "미국사",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서울, 1987, pp. 342~345.
- 6) S. Baron, "Yves Saint Laurent joue la simplicité", in *France Soir*, 1967, 8.2.
- 7) C. Berthod, "Saint Laurent, Coupez pour nous", in *Elle*, 1968, 3.7, pp. 94~97.
- 8) C. Berthod, "Les hommes nouveaux que nous prépare Saint Laurent", in *Elle*, 1969, pp. 151~155.
- 9) H. Béthar, "New York fête Yves Saint Laurent", in *Le Point*, 1983, 12.19, pp. 104~107.
- 10) A. Bony, "Les années 60", Regard, Paris, 1989, pp. 520~670.
- 11) F. Boucher, "Histoire du costume : en occident de l'antique à nos jours", Flammarion, Paris, 1988, pp. 423~438.
- 12) J.P. Bouyxou and P. Delannoy, "L'aventure hippie", Plon, Paris, 1992, p. 308.
- 13) M. Brake, "Youth Culture",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85, pp. 32~87.
- 14) M. de Brunhoff, "Vingt ans Yves Saint-Laurent", in *Jardin des Modes*, 1982, 2, pp. 8~10.
- 15) B. Burman, "Fashion Rivivals : from the Elizabethan age to the present day", Batsford, 1981, pp. 170~179.
- 16) M. Delbourg - Delphis, "La mode pour la vie",

- Autrement, Paris, 1983, pp. 33~63.
- 17) Y. Deslandres et F. Müller, "Histoire de la mode au xx<sup>e</sup> siècle", Somogy, Paris, 1986, pp. 236~271.
- 18) E. Ewing, "History of 20th centry fashion", B.T. BA TSFORD LTD, London, 1974, pp. 177~224.
- 19) J.L. Ferrier(dir), "L'Aventure de l'art au xx<sup>e</sup> siècle", Chère, Paris, 1990, pp. 566~663.
- 20) P. Garner, "Art Décoratifs de 1940 à 1980", Bordas, Paris, 1982, pp. 31~42.
- 21) B. Hillier, "The Style of the century", E.P. Dutton, inc., New York, 1983, pp. 192~197.
- 22) J. Laver, "Histoire de la mode et du costume", Thames and Hudson, London, 1990, pp. 255~276.
- 23) J. Lobenthal, "Radical rags : Fashions of the sixties", Cross River Press, New York, 1990, pp. 27~39, 114.
- 24) T. Polhemus, "Street style", Thames and Hudson, London, 1994, pp. 61~66.
- 25) R. de Relang, "30années de mode à Paris : 1951-1981", Vilo, Paris, 1982, pp. 80~147.
- 26) B. du Roselle, "La Mode", Imprimerie nationale, Paris, 1980, pp. 225~290.
- 27) Y. Saint Laurent, "Yves Saint Laurent par Yves Saint Laurent", Herscher, Paris, 1986, pp. 56-71.
- 28) J. Samet, "Hommage à Saint Laurent", in *Le Figaro*, 1983, 12.8, p. 28.
- 29) M. Thomas, "Nostalgie... des sixties", in *Textile/Art*, 1986, 6, pp. 7~13.
- 30) L. Yablonsky, "The hippie trip", Pegasus, New York, 1969, pp. 256~296.